

오디에이션 학습이 음악인지능력과 음악수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장 근 주* · 고 승 희**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든의 오디에이션 학습이 음악 인지능력 향상과 음악수업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음악 인지능력 검사와 음악수업 흥미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오디에이션의 학습이론을 통제집단은 기존의 수업을 3주 동안 학습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집단은 음악 인지능력에서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실험집단 흥미도의 전체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상승되었고, 이 중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다. (3) 음악 인지능력은 흥미도와 95%의 신뢰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주제어 : 음악 인지능력, 음악수업흥미도, 오디에이션, 실험연구

차 례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음악 인지능력 검사 사전·사후 비교
2. 흥미도 사전·사후 검사 비교
3. 인지능력과 흥미도의 상관분석
4. 음악과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도 변화 분석

IV. 결론

* 이화여자대학교

** 부평서여자중학교

I. 서론

고든(Edwin. E. Gordon)의 학습이론인 오디에이션(Audiation)은 물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상상하여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하지 않고도 마음속으로 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 음악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오디에이션이라고 명한다.

고든은 모국어를 배울 때와 같은 순서로 음악 학습을 내용과 순서를 단계적으로 제시한 위계학습을 고안하였다. 아기에게 글을 먼저 읽게 하지 않는 것처럼 음악 학습에서 음악을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악보와 이론 학습은 가장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우리나라 음악교육에서도 1990년대 이후 고든과 여러 학자들의 새로운 교수법이 연구·적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실에서는 음악을 소리로 이해하기 전에 악보와 이론 중심의 수업은 학생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김미나(2009)는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은 55.7%이나, 음악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은 20.5%로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흥미는 높지만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낮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고든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음악학습이론 수업지도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업지도 개발은 고든의 음악학습이론과 ARCS이론을 접목한 창작지도 방안(노현정, 2008), 고든의 오디에이션 학습이론의 기능위계와 리듬 학습이론을 적용하여 리듬 패턴 지도방안 개발(김현진, 2003),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한 합창지도에 관한 학습지도안(이태동, 2007)등이 있다. 음악 흥미도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도와 음악 성취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 배성애(2000)연구로 국한되며 음악 인지능력과 흥미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든의 오디에이션 학습이 음악 인지능력의 향상과 음악수업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든의 오디에이션 학습 적용 후 음악 인지능력의 향상도는 어떠한

가? 둘째, 음악 인지능력의 향상이 음악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음악 인지능력의 향상과 음악의 흥미도의 상관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단계 군집표집방법(two-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인천시 소재 2개와 경기도 소재 1개 중학교에서 총 503명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동질성이 확보된 2학급의 37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실험집단은 오디에이션의 학습을 통제집단은 기존의 수업을 적용하였다. 음악적성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학급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 오디에이션 학습을 적용한 수업을 처치변인(treatment variable)으로 제재곡, 학습목표, 음악실의 물리적인 환경, 음악교구, 제재곡의 반주 음악 등의 매개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통제하였다.

2. 측정도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음악수업 흥미도와 음악 인지능력을 동일한 설문지로 측정하였으며 SPSS 12.0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답안은 5단계의 척도로 나누어 문항별, 항목별, 전체평균을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또한 측정된 두 집단의 평균값과 차이수준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음악수업 흥미도 검사

음악수업에 흥미도 검사의 설문지는 음악에 대한 흥미도, 음악수업에 대

한 흥미도, 음악 및 음악수업에 대한 가치관으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허정화(2008)와 김미나(2009)가 개발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5단계 척도로 객관식 총 25문항을 기본으로 각 문항에 추가적인 질문을 첨가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이 특정 개념을 동일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내용과 주제, 각 요인을 측정하는 항목들의 Cronbach's α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음악 및 음악수업 흥미도 설문지 영역별 내용

영역	주제	내용	문항수	신뢰도
제1영역	음악의 흥미도	• 음악에 대한 흥미도 • 좋아하는 음악 장르	9	0.614
제2영역	음악수업의 흥미도	•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 • 음악수업에서 좋아하는 영역	9	0.865
제3영역	음악 및 음악수업의 가치관	• 진로 및 가치관	7	0.662

2) 음악 인지능력 검사

음악 인지능력 검사는 최은식(2006)의 ‘음악 인지능력 검사’를 사전·사후 검사에 사용하였다. 음악 인지능력 검사는 가락·화음, 리듬·박자, 가락선·주선율, 형식·성부조직으로 크게는 4개의 영역이 각각 2종류의 내용으로 나뉘어져 총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8개의 하위 영역은 각 5문항씩 구성되었다. 검사는 현악기와 피아노 연주로 녹음된 CD를 준비하여 실음평가로 실시하였다. 리듬, 선율, 화음 등을 듣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패턴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고, 선율을 듣고 일치하는 그림 악보나 수식을 찾는 형식이다. 시간은 총 32분이며 학생들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2차시로 나누어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실험의 적용 및 실제 수업

본 연구의 수업은 고든의 오디에이션 학습을 적용한 윤대세(2008), 양소영(2007), 장주영(2004)의 수업 지도안을 수정·보완하였다. <표 2>는 실험집단의 <표 3>은 통제집단의 3주간의 수업내용이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주제와 학습목표는 같으나 수업활동에서 고든의 원리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두었다. 첫째,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높여 즉각적으로 반응 할 수 있는 실음 중심의 수업이 되기 위하여 교사의 육성을 활용하여 수업하였다. 둘째, 음악 전체를 배우기 전에 패턴단위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가 없는 패턴을 활용하여 수업하였다. 또한 가사에 방해 받지 않고 리듬과 음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듬은 ‘바’로 음고는 ‘밤’으로 지도하였다. 셋째, 오디에이션을 위해서 학생들을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게 하였다.

<표 2> 수업 적용 악곡 및 주요내용

제재곡	차시	주제	주요 내용
푸른 목장	1	사장조 음계	• 제자리걸음으로 리듬패턴을 리듬음절로 부르기 • 가락패턴을 따라 부르고 화음의 어울림 느껴보기 • 사장조의 으뜸음과 음계를 오디에이션으로 부르고 소리 내어 부르기 • 마지막 단계에서 악보를 보며 제재곡 부르기
	2	주요3화음과 마침꼴	• 주요 3화음의 어울림을 오디에이션으로 부르고 소리 내어 부르기 • 마침꼴의 화음을 직접 부르고 차이점을 이야기하기 • 반마침과 바른마침의 설명 듣고 소리로 구별해보기 • 악곡의 형식과 창작하기
진도아리랑	1	육자배기 토리	• 소고의 기본 박에 맞추어 리듬음절 따라 부르기 • 육자배기의 가락패턴 및 시김새 듣고 따라 부르기 • 한 소절씩 따라 부르고 전체 악곡을 부른 뒤 악보를 보며 제재곡 부르기
	2	세마치 장단	• 세마치장단의 장단꼴을 듣고 따라 부르기 • 장단을 구음으로 부르고 장단쳐보기 • 세마치장단의 장단을 음표로 그리기
모차르트 ‘세레나데’	1	현악기의 음색	•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리듬패턴 부르기 •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소리 듣고 구별하기 • 여러 가지 현악기의 음색을 듣고 구별하기

	2	주제 가락 익히기	• 음고 음절로 주제 가락 노래하기 • 통합 활동을 통해 주제 익히기 • 제1주제와 제2주제 오디에이션 하기
얼굴	1	6/8박자 익히기	• 6/8박자의 익숙한 곡을 부르기 • 제자리걸음으로 제재곡의 리듬패턴을 부르기 • 제재곡의 주요가락 패턴 듣고 따라 부르기 • 음악을 들으며 자유롭게 움직이기
	2	강·약 박치기	• 노래에 맞추어 강·약박을 쳐보기 • 중간에 '침묵'하여 마음속으로 듣기
	3	흐름결 오스티나토	• 흐름결 패턴을 노래하기 • 오스티나토에 맞춰 흐름결 즉흥연주

<표 3> 수업 적용 악곡 및 주요내용

제재곡	차시	주제	주요 내용
푸른 목장	1	사장조 음계	• 음표와 쉼표의 명칭과 길이 배우기 • 사장조의 으뜸음과 음계의 계이를 적고 노래 부르기 • 소프라노와 알토를 나누어 부분2부 합창 부르기
	2	주요3화음과 마침꼴	• 주요 3화음을 익히고 악보에서 찾아보기 • 마침꼴의 종류를 이해하고 맞추기 • 악곡의 형식과 창작하기
진도아리랑	1	육자배기 토리	• 전체 악곡을 들어보고 한 소절씩 따라 불러보기 • 육자배기의 구성음을 부르고 악보에서 찾아보기 • 악보를 보며 제재곡 부르기
	2	세마치장단	• 세마치장단의 장단꼴을 무릎장단으로 쳐보기 • 장단의 구음과 기호 익히기 • 제재곡을 부르며 무릎장단 쳐보기
모차르트 '세레나데'	1	현악기의 음색	•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의 소리의 특성 들어보기 • 여러 가지 현악기에 대한 설명과 음색 들어보기
	2	주제 가락 익히기	• 주제 가락 부분만 들어보기 • 제1주제와 제2주제 노래 불러보기 • 전체악곡을 들으며 주제가락을 찾아보기
얼굴	1	6/8박자 익히기	• 6/8박자의 썸여림을 익히고 그려보기 • 제재곡의 조성과 주요가락 패턴 듣고 따라 부르기 • 6/8박자의 지휘법 익히고 음악을 들으며 지휘해보기
	2	강·약 박치기	• 타악기로 썸여림을 연주해보기 • 노래에 맞추어 강·약 박을 쳐보기
	3	리듬 즉흥연주하기	• 리듬 따라 부르기 •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타악기로 즉흥연주해보기

Ⅲ. 연구 결과 및 분석

1. 음악 인지능력 사전·사후 검사 비교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실험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음악 인지능력 비교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후 검사는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음악 인지능력 검사의 결과에서 리듬을 제외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검사(하위영역)	실험집단	통제집단	t	유의확률
가락·화음	7.19±1.26	7.03±1.57	0.501	0.618
리듬·박자	5.28±1.61	6.00±1.51	-1.975	0.052
가락선·주선율	7.00±2.01	6.81±1.37	0.470	0.640
형식·성부조직	6.03±2.22	6.38±1.50	-0.792	0.431
음악 인지능력	25.52±4.80	26.2±3.64	-0.717	0.475
리듬	24.16±4.27	23.00±10.82	2.699	0.067
가락	24.51±4.43	24.00±3.73	2.868	0.089
음악 적성	24.34±3.79	23.50±6.74	1.831	0.057

* 실험구분 : 사전실험 **p<0.01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실험 비교

	실험집단	통제집단	t	유의확률
가락·화음	8.11±1.14	7.32±1.56	2.449	0.017*
리듬·박자	6.78±1.33	6.49±1.43	0.901	0.371
가락선·주선율	7.86±1.52	7.03±1.32	2.508	0.014*

형식·성부조직	7.47±1.73	6.89±1.54	1.513	0.135
음악·인지능력	30.24±3.96	27.72±3.72	2.769	0.007**
리듬	25.84±2.26	24.27±2.34	-0.809	0.089
가락	26.70±2.46	23.85±2.78	0.709	0.038*
음악 적성	26.27±1.73	24.06±2.17	2.356	0.041*

** $p<0.01$, * $p<0.05$

실험집단이 가락·화음에서 0.79점, 리듬·박자에서 0.29점, 가락선·주선율은 0.83점, 형식·성부조직은 0.58점, 음악 인지능력이 2.52점, 리듬은 1.57점, 가락은 2.85점, 음악적성은 2.21점 높았다. 리듬·박자와 리듬과 형식·성부조직의 t-test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흥미도 사전·사후 검사 비교

흥미도의 사전 검사는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실험에서 두 집단의 비교결과 하위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후 검사는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흥미도의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6> 사전 흥미도 검사

흥미도 하위영역	실험집단	통제집단	t	유의확률
음악에 대한 흥미도	3.28±0.77	3.45±0.38	-1.272	0.210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	2.96±0.61	2.73±0.81	1.719	0.089
음악 및 수업에 대한 진로 및 가치	3.37±0.68	3.21±0.54	1.351	0.180
음악흥미도 전체	3.14±0.57	3.00±0.33	1.395	0.169

<표 7> 사후 흥미도 검사

***p<0.001

	실험집단	통제집단	t	유의확률
음악에 대한 흥미도	3.99±0.32	3.40±0.43	8.139	0.000***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	3.79±0.03	2.83±0.90	9.090	0.000***
음악 및 수업에 대한 진로 및 가치	4.09±0.27	2.93±0.50	15.671	0.000***
음악 흥미도 전체	3.94±0.15	2.98±0.42	17.391	0.000***

3. 인지능력과 흥미도의 상관분석

음악 인지능력과 흥미도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가락·화음($r=.244$), 리듬·박자($r=.259$), 가락선·주선율($r=.23$), 형식·성부조직($r=.202$), 리듬($r=.268$), 가락($r=.266$), 음악 인지능력($r=.229$), 음악적성($r=.239$)등 인지도 요인이 흥미도와 95%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음악 인지능력 변인과 흥미도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

	가락 · 화음	리듬 · 박자	가락 선주 선율	형식 · 성부 조직	리듬	가락	음악 인지 능력	음악 적성	음악 흥미 도	음악 수업 흥미도	진로 및 가치	음악 흥미도 전체
1	1											
2	.244 (*)	1										
3	.295 (*)	.337 (**)	1									
4	.155	.410 (**)	.593 (**)	1								
5	.021	.282 (*)	.111	.159	1							
6	.011	.268 (*)	.067	.292 (*)	.459 (**)	1						
7	.511 (**)	.691 (**)	.804 (**)	.816 (**)	.125	.234 (*)	1					
8	.004	.317 (**)	.019	.266 (*)	.844 (**)	.864 (**)	.212	1				

9	2.132(*)	.244 (*)	.202 (*)	.247 (*)	.212(*)	.236 (*)	.243 (*)	.235 (*)	1			
10	.251(*)	.348(**)	.271 (*)	.286 (*)	.217(*)	.28 (*)	.291 (*)	.214 (*)	.274(*)	1		
11	.264 (*)	.213 (*)	.255 (*)	.223 (*)	.224(*)	.224 (*)	.202 (*)	.261 (*)	.382(**)	.447 (**)	1	
12	-.244(*)	.259 (*)	.23 (*)	.202 (*)	.268(*)	.266 (*)	.229 (*)	.239 (*)	.487(**)	.850 (**)	.775 (**)	1

** p<0.01, *p<0.05

4. 음악과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도 변화 분석

(1) 음악에 대한 흥미도 변화

음악에 대한 흥미도 변화는 <표 9>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총 9문항 중 6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사전에는 음악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가 9명(42.86%)으로 가장 높았으나 사후에는 2명(9.52%)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평소 노래 부를 때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클래식이 1명(3.13%)에서 2명(6.06%), 국악이 1명(3.13%)에서 2명(6.06%), 대중가요가 28명(87.5%)에서 27명(81.82%)으로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 감상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음악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가 5명(45.45%)에서 2명(40%)이고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3명(27.27%)에서 1명(20%)이고 나머지는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음악 감상할 때 좋아하는 장르는 클래식이 2명(5.88%)에서 5명(15.15%), 국악은 1명(2.94%)에서 3명(9.09%), 팝송이 4명(11.76%)에서 5명(15.15%)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중가요는 25명(73.53%)에서 20명(60.61%)으로 감소하였다. 음악 연주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12명(44.44%)에서 10명(56.0%)로 감소하였으나, 음악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가 8명(11.11%)에서 4명(24.0%)으로 나타났다. 음악 연주 때 좋아하는 장르는 국악이 0명(0%)이었으나 사후에 1명(4.76%)으로 근소한 차이로 증가하였다.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와 평소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와 국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음악에 대한 흥미도 사전·사후 변화 (카이스퀘어 분석)

		집단구분		
		단위 : 명(%)		
		사전	사후	
1-1.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이해하기 어려워서	3(20)	2(13.33)	$\chi^2=6.678$ $p=.035^*$
	음악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2(9.52)	1(4.76)	
	지루하고 따분해서	1(4.76)	1(4.76)	
	음악(음정, 박자)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	9(42.86)	2(9.52)	
	기타	0(0)	0(0)	
1-2.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어서	2(6.67)	3(10.34)	$\chi^2=1.971$ $p=.137$
	매개체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17(80.95)	15(71.43)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워왔기 때문에	8(38.1)	8(38.1)	
	장래의 꿈을 심어 주기 때문에	3(14.29)	3(14.29)	
	기타	0(0)	0(0)	
2-1. 평소 노래 부르기 좋아하지 않는 이유	이해하기 어려워서	2(22.22)	1(25)	$\chi^2=1.399$ $p=.239$
	음악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1(4.76)	1(25)	
	지루하고 따분해서	2(9.52)	1(25)	
	음악(음정, 박자)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	4(19.05)	1(25)	
	기타	0(0)	0(0)	
2-2. 평소 노래부를 때 좋아하는 음악 장르	클래식	1(3.13)	2(6.06)	$\chi^2=21.451$ $p=.000^{***}$
	국악	1(3.13)	2(6.06)	
	대중가요	28(87.5)	27(81.82)	
	팝송	1(3.13)	1(3.03)	
	기타	1(3.13)	1(3.03)	
3-1. 감상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이해하기 어려워서	3(27.27)	1(20)	$\chi^2=13$ $p=.002^{**}$
	음악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1(9.09)	1(20)	
	지루하고 따분해서	2(18.18)	1(20)	
	음악(음정, 박자)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	5(45.45)	2(40)	
	기타	0(0)	0(0)	

3-2. 음악 감상할 때 좋아하는 장르	클래식	2(5.88)	5(15.15)	$\chi^2=28.875$ $p=.000***$
	국악	1(2.94)	3(9.09)	
	대중가요	25(73.53)	20(60.61)	
	팝송	4(11.76)	5(15.15)	
	기타	2(5.88)	0(0)	
4-1. 음악 연주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이해하기 어려워서	12(44.44)	10(56.0)	$\chi^2=3.035$ $p=.035*$
	음악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1(3.7)	1(6.0)	
	지루하고 따분해서	2(11.11)	1(6.0)	
	음악(음정, 박자)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	8(11.11)	4(24.0)	
	기타	4(11.11)	1(6.0)	
4-2. 음악 연주할 때 좋아하는 장르	클래식	8(61.54)	13(61.9)	$\chi^2=22.791$ $p=.000***$
	국악	0(0)	1(4.76)	
	대중가요	3(23.08)	5(23.81)	
	팝송	1(7.69)	2(9.52)	
	기타	0(0)	0(0)	
8-1. 국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이해하기 어려워서	7(31.82)	3(33.33)	$\chi^2=1.903$ $p=.357$
	전통음악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0(0)	0(0)	
	지루하고 따분해서	2(9.09)	1(11.11)	
	전통음악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	13(59.09)	5(55.56)	
	기타	0(0)	0(0)	

*** $p<0.001$, ** $p<0.01$, * $p<0.05$

(2)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도 변화

<표 10>에 따른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도 변화는 총 7 문항 중 5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수업이 즐겁지 않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12명(48%)에서 3명(37.5%)으로 감소하고, 지루하고 따분해서가 4명(20%)에서 2명(25%)로, 음악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가 7명(28%)에서 3명(37.5%)으로 나타났다. 음악시간에 가장 흥미로운 영역은 감상이 1명(11.11%)이었던 것이 5명(25%)으로 증가하였다. 음악 선생님의 지

시에 잘 따르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이 싫어서가 7명(46.67%)에서 6명(50%)로, 음악교과목이 싫거나 지루해서가 5명(33.33%)에서 3명(25%)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나 음악수업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음정박자를 모르거나 어려워서 7명(43.75%)에서 3명(50%)으로, 주요과목이어서가 6명(37.5%)에서 1명(16.67%)로,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명(6.25%)에서 1명(16.67%), 교과서 제재곡이 평소에 즐기는 음악과 달라서가 2명(12.5%)에서 1명(16.67%)으로 나타났다.

감상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7명(33.33%)에서 3명(37.5%)로, 지루하고 따분해서가 3명(14.29%)에서 1명(12.55), 음악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가 9명(42.86%)에서 3명(37.5%)으로 차이가 있었다. 음악수업 시간에 가장 즐겁지 않은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6명(35.29%)에서 3명(42.86%)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외우는 곡이 한곡도 없는 이유는 교과서의 악곡은 재미가 없어서가 8명(38.1%)에서 2명(25%)으로 감소되었고, 음악수업이 싫어서는 2명(9.52%)에서 1명(12.5%)으로 나타났다.

<표 10>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 사전·사후 변화 (카이스퀘어 분석)

		집단구분 단위 : 명(%)		
		사전	사후	
9-1. 음악수업이 즐겁지 않는 이유	이해하기 어려워서	12(48)	3(37.5)	$\chi^2=7.549$ $p=.000***$
	음악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1(4)	0(0)	
	지루하고 따분해서	5(20)	2(25)	
	음악(음정, 박자)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	7(28)	3(37.5)	
	기타	0(0)	0(0)	
9-2. 음악시간에 가장 흥미도로운 영역	가창	3(33.33)	7(35)	$\chi^2=3.773$ $p=.045*$
	기악	2(22.22)	5(25)	
	감상	1(11.11)	5(25)	
	창작	1(11.11)	2(10)	
	기타	2(22.22)	1(5)	

10-1. 음악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이유	선생님이 싫어서	7(46.67)	6(50)	$\chi^2=1.608$ $p=.274$
	음악교과목이 싫거나 지루해서	5(33.33)	3(25)	
	비 주요과목이어서	0(0)	0(0)	
	적성에 맞지 않아서	2(13.33)	2(16.67)	
	기타	0(0)	0(0)	
14-1.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는 만큼 음악수업이 즐겁지 않는 이유	음정 박자를 모르거나 어려워서	7(43.75)	3(50)	$\chi^2=3.757$ $p=.039^*$
	음악교과목이 싫거나 지루해서	0(0)	0(0)	
	비 주요과목이어서	6(37.5)	1(16.67)	
	적성에 맞지 않아서	1(6.25)	1(16.67)	
	제재곡이 평소에 즐기는 음악과 달라서	2(12.5)	1(16.67)	
15-1.감상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워서는	7(33.33)	3(37.5)	$\chi^2=1.671$ $p=.056$
	음악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1(4.76)	1(12.5)	
	지루하고 따분해서	3(14.29)	1(12.5)	
	음악(음정, 박자)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	9(42.86)	3(37.5)	
	기타	0(0)	0(0)	
16-1. 음악 시간에 가장이 즐겁지 않은 이유	이해하기 어려워서는	6(35.29)	3(42.86)	$\chi^2=3.652$ $p=.027^*$
	음악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질 않아서	0(0)	1(14.29)	
	지루하고 따분해서	0(0)	1(14.29)	
	음악(음정, 박자)을 잘 모르거나 못해서	0(0)	2(28.57)	
17-1. 1곡도 없는 이유	잘 외어지지 않아서	3(14.29)	1(12.5)	$\chi^2=8$ $p=.005^{**}$
	박자와 음이 어려워서	0(0)	0(0)	
	교과서의 악곡은 재미가 없어서	8(38.1)	2(25)	
	음이 높아서	3(14.29)	1(12.5)	
	음악수업이 싫어서	2(9.52)	1(12.5)	

**p<0.01, *p<0.05

IV.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오디에이션 학습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음악 인지능력 검사에서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 오디에이션 학습이 음악 인지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다만 리듬·박자와 리듬에서는 실험집단과 연구집단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듬과 박자는 3주간의 단기적인 학습이 아니라 장기적인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실험집단 흥미도의 전체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상승되었고, 음악흥미도 하위 영역 중에서도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졌다. 본 연구의 사전 검사 결과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음악에 대한 흥미도보다 낮았다. 이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은 음악에 대한 흥미도는 높지만,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낮다(김미나, 2009)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음악에 대한 흥미도가 낮은 이유와 음악을 좋아하는 만큼 음악수업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음정 및 박자에 대해서 모르거나 어려워서라고 답하여 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습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음악인지 능력과 음악에 대한 흥미는 95%의 신뢰도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음악에 흥미도가 높으면 음악 인지능력 점수가 높다는 허정화(2010) 연구와, 음악흥미와 음악 성취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었으며, 정적관계라는 배성애(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흥미는 곧 동기를 의미하며 동기화가 있는 경우에 음악에 대한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을 토대로 음악교과의 학습방안 설정이 필요하다.

음악 인지능력 이외에도 학생들의 흥미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다. 수업 담당 교사, 다양한 수업 방식, 교과서의 제재곡, 수업에 사용되는 교구 및 음악실의 물리적인 환경과 교사나 학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개별적인 능력 및 음악적 경험, 가정 환경 등이 있다. 그러나 음악 외적인 요소가 아닌 음악의 본질인 소리의 이해와 음악 인지능력의 향상을 통해 음악의 흥미도가 높아졌다는 연구는 음악수업의 방향설정에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미나 (2009). 중학생 음악수업의 흥미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 김현진 (2003). 고든의 리듬 학습 이론을 적용한 리듬패턴 지도방안 연구: 초등 4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노현정 (2008). ARCS전략과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한 창작지도안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배성애 (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도와 음악성취도간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양소영 (2009). '패턴-연계'중심의 음악과 교수학습이 청각 인지 능력의 향상에 끼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 윤대세 (2008). 고든음악학습이론을 응용한 중학교 2학년 민요학습 지도 연구 -'진도아리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태동 (2007). 고든의 음악학습이론을 적용한 합창 교수·학습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장주영 (2004). 고든의 이론을 적용한 음악교수법 연구-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허정화 (2010). 기악교육과 음악 인지능력, 적성, 흥미도간의 상관성 연구.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4(1), 43-59.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Cognitive Capacity and Interest level in Music Classes Applying Audiation Learning

Jang, Gunjoo · Ko, Seu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cognitive capacity and interest level in music classes applying Gordon's audiation learning for 7th grade students. The control group was exposed to regular music lessons whereas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the lesson plan based on Gordon's audiation for 3wee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omparing cognitive music capacity,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change. Second, the music interest score for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from 3.14 to 3.92 point while the control group decreased from 3.00 to 2.98 point. Third, music cognitive capacity and music interest level has moderation relationship ($r=.229$) at 95% level of confidence. Thus,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udents' music cognitive capacity and their interest level in music classes.

key words: cognitive music capacity, Gordon's audiation learning

투고일: 2013년 2월 25일, 심사(수정): 4월 6일(4월 30일),
게재 확정일: 5월 10일